

원룸지상 모델 하우스

생활패턴따라 평면 고르기

독신용, 신혼부부, 재택근무용 등 조건에 따라 설계도 다양

원룸의 생명은 평면이다. 다른 주거형태와 달리 원룸은 거주자의 생활패턴에 적합한 평면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원룸의 평면 계획은 처음부터 확실한 거주자층을 염두에 두고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처음 원룸이 등장했을 당시는 평면이 단순한 독신자의 거주를 위한 원룸 그 자체였으나 점차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계층으로 수요자의 폭을 넓히게 됐고 자연스럽게 각 이용계층에 맞는 평면들이 등장했다. 또한 평수도 처음 소개될 당시 7평 내지 8평이었으나 현재는 15평~25평까지 대형 평수가 등장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30평 이상되는 평형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원룸의 의미를 방이 하나인 주택에서 특수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꾸며 놓고 사는 주택으로 확대시키는 경향을 입증하는 셈이다.

현재 유행되고 있는 원룸의 평면은 순수한 독신자용, 재택근무자용, 학생용, 신혼부부용, 자영업자용 등 10여종에 달하고 있다. 또한 각 평면 유형들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니며 거주자의 생활 및 업무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여러 평면유형 가운데 자신의 거주 패턴에 꼭 맞는 평면을 찾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원룸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주거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생활에 적합한 평면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단순한 설명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고 직접 평면도를 보면서 시설의 배치와 동선 계획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1. 독신자형-10평

독신자형은 원룸 평면의 고전이라 할 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오랜기간 인기를 누리는 평면유형이다. 대개의 경우 10평 내외로 길쭉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독신자형은 일반적으로 살림살이가 적은 원룸이기 때문에 현관에 들어서면 내부전체가 보인다. 그래서 주방시설이나 보일러실, 화장실 등을 한쪽으로 집중 배치시켜 쾌적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진입부로부터 화장실, 보일러실 등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집중 배치돼야 나머지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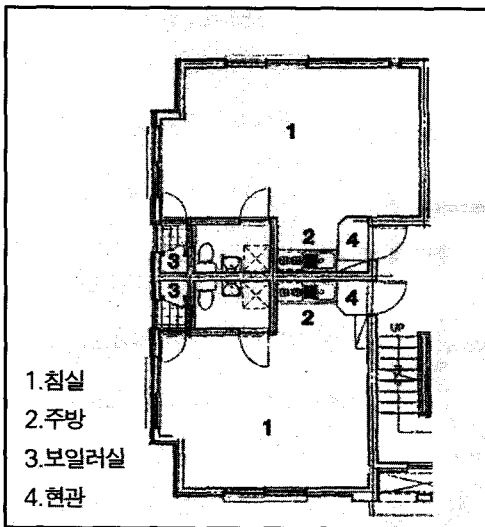
2 자녀 있는 중년층형 25평

집수리를 번거롭게 여기는 사람이나 서울 근교 아파트에 거주하다 서울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살고 있던 아파트의 교통이 불편해 이주하는 자녀가 둘 있는 중년층을 위한 평면유형이다.

오른쪽 평면은 방을 세 개로 만들고 거실을 중심으로 평면을 구성했다. 거실을 가장 크게 만들고 거실 앞 베란다 양쪽에는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다른 세대보다 짐이 많기 때문에 세탁실도 창고로 쓸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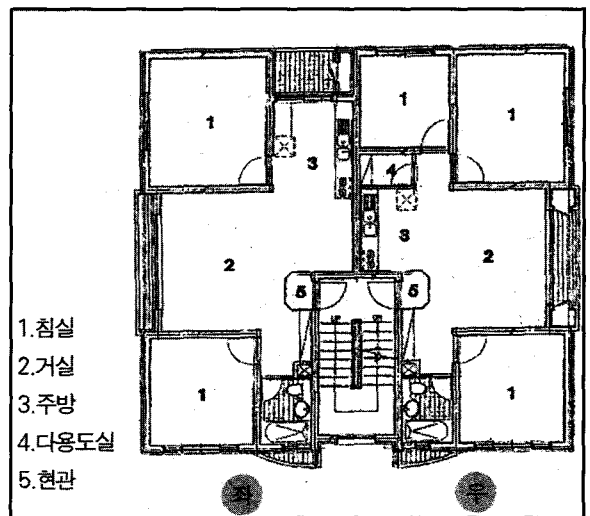
했다.

이 평면의 특징은 거실에서 각 방의 방문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중년층의 경우 거실에서의 공동생활과 각 방에서의 개인생활이 분리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처럼 각 방의 출입문을 만들었다. 현관에 진입하면서 곧바로 거실로 향하게 되어 있고 주방은 진입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현관에 진입해서 바로 거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시선을 틀어야 전체 방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한 평면이 좋으며 좌우 한쪽으로 주방과 욕실이 일렬로 배치된 평면이 같은 평면이라도 공간을 더욱 넓어 보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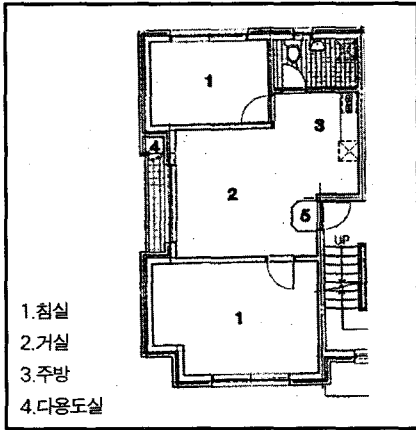
이 평면은 11평형으로 화장실, 부엌, 보일러실 등 기능적인 공간들을 좌우 한쪽 벽면에 일렬로 집중 배치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현관 벽 뒤에 배치했다.

왼쪽 평면은 자녀가 없는 중년층을 위한 것으로 평면에서 방 하나를 없앴다. 재택근무를 겸하는 사람의 경우, 하나의 방은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다른 방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주방에 식탁겸 책상을 설치해 근무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3. 신혼부부형(맞벌이)-24평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가구를 사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구배치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평면을 정방형으로 하지 않았다. 가구를 사지 않는 대신 이들은 대부분 방을 하나의 가구처럼 사용한다. 이러한 취향을 반영해 방 하나에 이불, 옷(드레스룸), 기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평면도에서 욕실 옆으로 위치한 방이 수납을 위한 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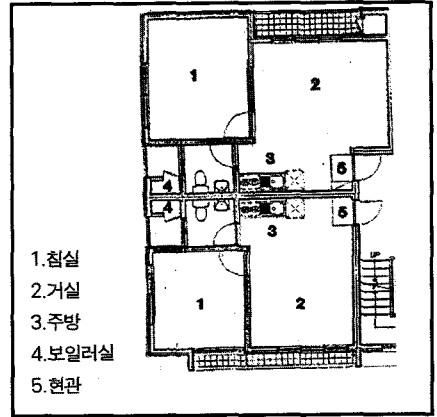
다른 원룸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방과 욕실을 한쪽으로 집중 배치해 공간활용을 높였고, 상대적으로 거실을 크게 확보했다. 베란다의 경우 아파트의 베란다와 같은 형태인 좌우로 길쭉한 베란다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들은 주간의 시간을 대부분 밖에서 보내고 귀가하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서면서 공간이 안정된 느낌을 받는 것을 원한다. 따라서 주방과 욕실 그리고 가구방을 한쪽으로 배치해 동선을 최소로 하여 집안에서 별도의 공간처럼 느끼게 하고 나머지 공간에서는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평면을 구성하고 있

다. 이러한 휴식공간은 거실에서 떨어져 있다.

4. 재택근무형-20평

주거와 사무를 겸하는 재택근무에 가장 이상적인 평면 유형이다. 거실과 방으로 구분한



투룸(Two Room)형태로 거실을 사무실 및 작업 공간으로 방은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확실한 공간구분을 해주고 있다.

재택근무형은 대로변에 위치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이때 소음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데, 베란다를 확보하면서 이중창을 이용해 소음을 차단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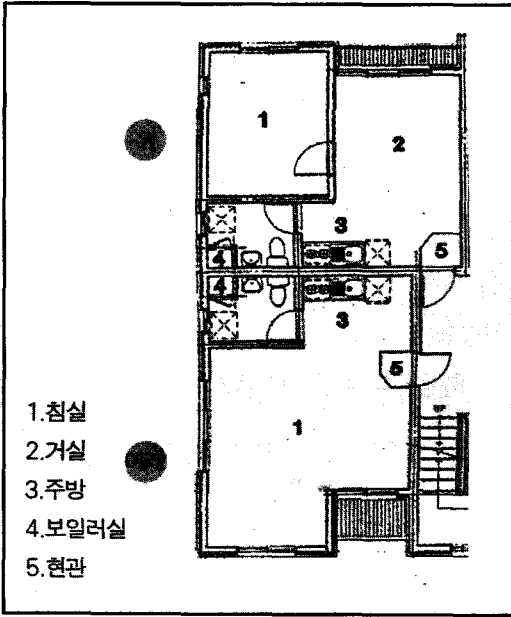
이 평면에서 특징적인 것은 방의 창문이 거실창문과 동일한 크기의 전면창이라는 것이다.

기존 주택과 같이 방과 거실을 구분해 놓고는 있지만 재택근무를 위해 거실과 방의 차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한 시도이다.

또한 손님이 출입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세탁물, 부엌살림 등 지저분한 것을 철저히 가리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보일러실은 욕실을 통해 들어가도록 하고 그곳에 세탁기를 두어 세탁기 소음마저 최소화하였다. 또한 보일러실에 베란다를 따로 두어 세탁물을 갖고 거실로 나오지 않을 수 있게 했다.

5. 신혼부부형(재택근무형과 살림집)-22평

이 평면도는 두 가지 형태의 원룸을 보여주고 있다. 위쪽에 위치한 평면은 재택근무를 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것이고 아래 평면은 살림집으로 이용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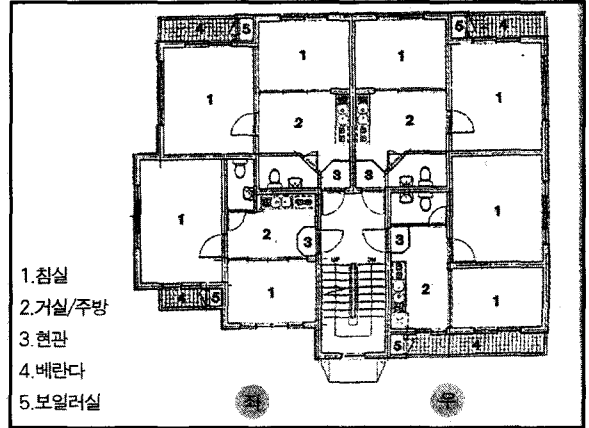
두 평면 모두 신혼부부를 위한 것이지만 각각의 특징을 지니면서 성격을 달리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재택근무형의 경우 거실과 방을 구분해 주고 살림집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거실의 구분을 하지 않고 원룸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재택근무 신혼부부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재택근무를 위해 거실을 따로 만들어 주었고 베란다가 길게 처리했다. 반면 살림집으로 쓰는 신혼부부에게는 둘만의 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방과 거실을 만들지 않고 원룸 그대로를 살렸다. 또한 산만한 분위기를 막기 위해 베란다의 형태를 정방형에 가깝도록 해 내부와 하나의 공간으로 느낄 수 있다.

6. 학동기 자녀를 둔 부부형-20평형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동네 주택가에 많이 지어지는 평면형이다. 초등학교에 입학 앞둔 있거나 저학년애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에 적합한 평면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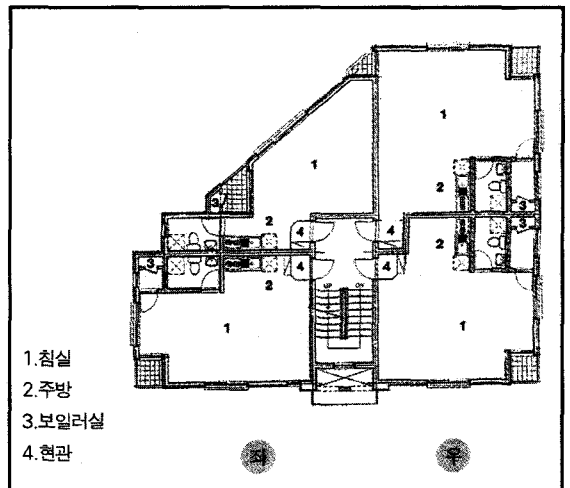
기본적인 평면형태는 기존의 투룸형태를 응용한 것이다. 투룸에서 거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고 초등학교 입학 앞둔 자녀를 위해 방을 따로 만들어 주었다. 현관에 들



어서서 화장실을 가장 가깝게 배치했고, 주방은 독립적으로 배치했다. 이러한 주거형태는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방의 사용빈도에 맞게 비중을 두었다. 주방을 거실로 오픈시키면서 하나의 독립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쪽 벽면에 일렬로 주방가구를 배열했다. 작은 거실에서 효과적인 공간구분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7. 여학생용-12평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룸 가운데 특히 여학생에 초점을 맞춘 평면유형이다. 개성이 강한 여학생들은 사과상자 같은 정방형의 집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평면에 다양하게 각을 주어 실내를 입체적으로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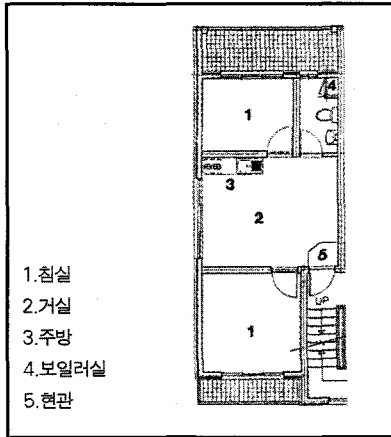
평면이 길게 생긴 전형적인 원룸형태를 응용해 내부 벽면을 여러 번 굴절시켰으며 모서리 부분을 이용해 베란다가 만들었다. 이 평면은 실내의 구조를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학생들 특유의 세련된 감각과 개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현관 입구에 싱크대를 놓고, 욕실 뒤로 보일러실을 배치했다. 깔끔한 실내를 유지하도록 욕실 안에 세탁기를 두었다. 다른 이용자에 비해 베란다 이용이 적고 이용목적도 실용적인 것 보다 분위기에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베란다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뽀족한 지붕밀 다락방 등을 선호하고, 자신이 사는 건물의 전체적인 조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독특한 평면과 함께 외관의 디자인과 색상을 감각적으로 꾸민 것들이 많다.

8. 직장인형-18평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평면은 실내의 앞뒤로 베란다가 있는 기본적인 아파트 평면을 그대로 이용했다. 전형적인 직장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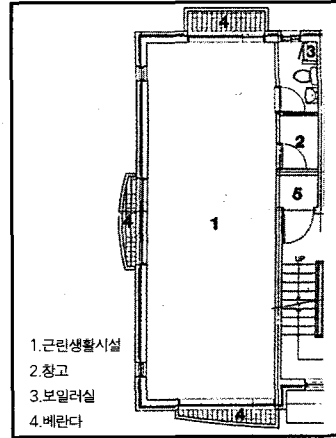
은 아파트형의 정형화된 평면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기존 아파트와 비교해 베란다가 좀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서 출퇴근을 하고 싶어 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내는 두 개의 방으로 만들었다. 혼자서 힘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힘든 직장인들을 위한 배려로 둘 이상 뜻을 모아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을 자주 하지 않는 특성상 주방은 가운데

거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한쪽으로 배치했고 베란다의 양 끝의 각 실에 연결시켰다. 두 개의 방을 떨어져 있게 배치한 것은 철저히 개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이다.

9. 자영업자형-22평



원룸에 오피스텔의 개념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평면 유형이다. 주된 이용 대상은 자영을 하는 사람들이다. 재택근무자도 이용이 가능하나 주거 기능보다 사무 기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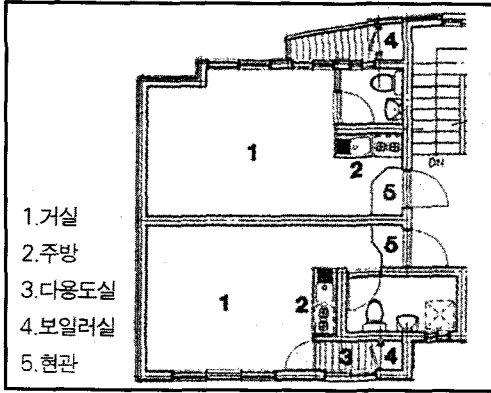
때문에 재택근무자들은 다소 불편함을 있을 수 있다.

이 평면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베란다가 삼면에 걸쳐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룸의 공간을 칸막이를 이용해 세 개의 공간으로 형성했을 때 각각의 공간이 베란다가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 명이 모여 각자 자신의 원룸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전기 배선 등 모든 설비도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즉 원룸을 칸막이로 나누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작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용하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이다.

10. 학생용(남,여)-8평

학생용의 특징은 일단 크기가 작더라도 베란다가 있어야 하고 화장실 안에 세탁기가 들어가야 한다. 실용적인 용도보다는 분위기적인 용도에서 베란다가 선호하기 때문에 작은 베란다가 만들어 주는 것이 좋고 원룸의 특성상 세탁을 욕실안에서 해결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같



- 1. 거실
- 2. 주방
- 3. 다용도실
- 4. 보일러실
- 5. 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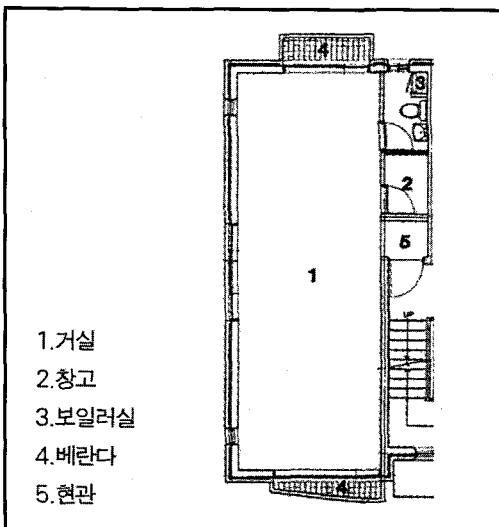
은 의미에서 보일러실을 베란다 한편에 마련해 베란다는 통해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식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싱크대가 작다.

11. 전문직 종사자형-18평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룸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탄생한 새로운 평면유형으로 교수들이나 연구원 및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영업자용 평면과 거의 일치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용은 원룸을 세 개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베란다는 세 개로 만든 것과 달리 두 개의 베란다만 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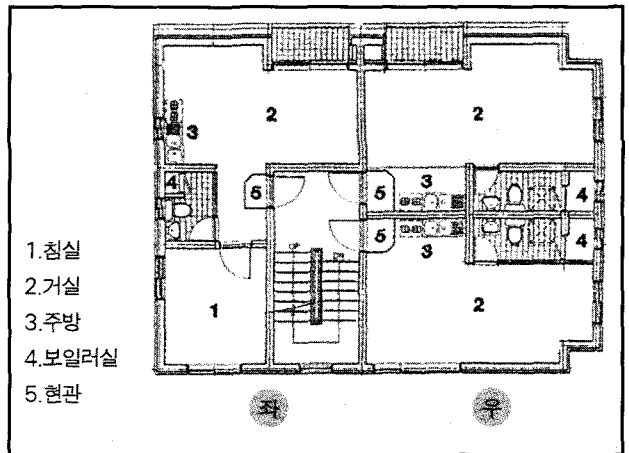
- 1. 거실
- 2. 창고
- 3. 보일러실
- 4. 베란다
- 5. 현관

신촌일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룸의 평형을 늘려 교수들이 거주하면서 자신의 연구실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각종 연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연구실을 겸할 수 있는 평면으로 만들었다.

12. 다목적 기능형-12평

특정한 이용대상을 정하지 않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평면유형. 기본적으로 한 공간을 언제나 두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에서 좌우 두 개의 평면유형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의 평면유형은 하나의 고안에서 간단히 두 개의 공간으로 만들어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평면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거실의 중



- 1. 침실
- 2. 거실
- 3. 주방
- 4. 보일러실
- 5. 현관

간부분에 약간의 턱이 만들어져 있어 이 부분에 커튼이나 간단한 칸막이를 설치하면 곧바로 두 개의 실이 만들어진다. 거실 중간의 이 턱은 바닥의 고저차를 느끼게 해 두실을 구분해 주고 있다. 또한 이 부분에 칸막이 대신 가구나 장식장을 놓아도 두 실의 고저차로 인한 심리적인 공간구분이 가능하다.

왼쪽의 평면은 투룸의 형태로 별도의 칸막이 작업 없이 두 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평면유형이다.